

개인명 전거제어 및 전거형 접근점 작성을 위한 한국목록규칙 개정 방안*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ing Rules for Personal Name Authority Records and Authorized Access Point

노 지 현(Jee-Hyun Rho)**

〈 목 차 〉

I. 서론	IV.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구축 사례
II. 개인명 전거제어의 목적과 기능	1.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
III. RDA 및 NCR 개정(안)의 관련 규정	2. 전거레코드의 사례
1. 개인의 적용 범위	V. 한국목록규칙 개정을 위한 논의
2. 개인의 속성	VI. 결론
3. 우선 개인명의 선정과 기록	
4.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KCR4와 그 후속 논의에서조차 배제되어 왔던 접근점, 그 중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FRBR와 FRAD 개념모델, FRBR 실행 시나리오, ICP 등을 토대로 하여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기능에 대해 고찰하고, (2) RDA와 일본목록규칙 개정(안)에 수록된 개인의 속성과 접근점에 관한 규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어, (3) 미의회도서관(LC)과 일본국립국회도서관(NDL)에서 구축한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를 분석하고, (4) 관련 규정의 부재 속에서 그간 국내 도서관들이 나름의 방식에 따라 구축해 온 개인명 전거레코드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향후 KCR 개정에서 반영할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안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안하였다.

키워드: 목록규칙, 목록동향, 전거, 접근점, 전거데이터, 전거레코드, 전거형 접근점, 개인명, 인명 전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uggestion on the Korean cataloging rules (KCR) for personal name access points. KCR4 revised in 2003 has been criticized in the absence of related rules. To the end, this study investigates (1) the objectives and functions of personal name access points in the changing bibliographic universe, (2) the detailed rules for persons in RDA and new NCR, and (3) the cases of personal name access points in LC(Library of Congress), NDL(National Diet Library in Japan) authority records. (4) Based on theses, suggested are rules and examples for recording attributes and the authorized access points of persons in KCR to be revi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literature review, the case study, and the interviews with catalogers.

Keywords: Cataloging rules, Cataloging trends, Authorized access point, Authority data, Authority records, Preferred personal name, Name authority, Korean Cataloging rule, KCR, NCR, RDA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rho@pusan.ac.kr)

•논문접수: 2016년 5월 19일 •최초심사: 2016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20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201-229,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201]

I. 서론

2003년에 발표된 한국목록규칙 제4판(이하 KCR4)은 종래 단행본 중심의 목록규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용하고, 이원화되어 있던 목록규칙을 하나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KCR4에서 표목(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고, 나아가 동일한 표목의 상이한 형식은 통일표목 대신 기계적 연결기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관한 기준을 목록규칙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목록이론의 새로운 진전”(한국도서관협회 2003, x)이라던 당시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의 평가와 달리, “표목 규칙의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도태현 2015, 208)이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자료조직 연구자나 편목사서들 사이에서 “표목과 전거제어에 관한 규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정현 2013, 135).

현재의 시점에서 목록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방향은 FRBR로 귀결되고 있다. 1998년 IFLA에서 발표한 FRBR에서는 서지적 단위(bibliographic unit)가 아닌 저작 단위(literary unit)를 기술의 대상으로 삼으며, 특정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저작물 또는 동일 저작의 다양한 판 등 ‘저작’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FRBR의 구현을 위해서는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유기적 연계가 불가피하다. 저작이나 표현형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점, 즉 전거형식의 접근점을 서지레코드에 반영하고, 이들 개체에 대한 전거형이나 이형, 기타 정보는 전거레코드를 통해 식별하고 관리하면서 서지레코드의 디스플레이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록작성에 관한 국제적 원칙인 ICP와 AACR2의 후속 목록규칙인 RDA 등에서는 FRBR과 FRBR의 확장 모형인 FRAD를 토대로 ‘전거형 접근점’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국내 도서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전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거형 접근점을 포함하는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며(이미화 2012 ; 김정현 2013 ; 도태현 2015 ; 이미화·노지현 2016 등), FRBR과 FRAD 개념모형을 반영한 RDA와 MARC21에 기초하여 『KORMARC 통합서지용』과 『KORMARC 전거통제용』의 개정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3 ; 2015). 이러한 추이를 고려할 때, 우리 목록의 방향도 결과적으로는 FRBR/FRAD, ICP, RDA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KCR4와 그 후속 논의에서조차 배제되어 왔던 접근점, 그 중에서도 저작과 표현형 식별을 위한 접근점의 기본요소이자 FRBR 제2집단 개체 중 하나인 ‘개인’에 대한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1) FRBR와 FRAD 개념모델, FRBR 실행 시나리오, ICP 등을 토대로 하여 개인명 전거제어 및 전거형 접근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2) RDA와 일본목록규칙 개정(안)에 수록된 개인의 속성과 접근점에 관한 규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3) 미의회도서관(LC), 일본국립국회도서관(NDL), 국제가상전거과일(VIAF)에 등록된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실체를 비교·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4) 관련 규정의 부재 속에서 그간 국내 도서관들이 나름의 방식에 따라 구축해 온 개인명 전거레코드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향후 KCR의 개정에 반영할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안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실무진 면담을 통해 확보하였다. 국내외 관련 문헌과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VIAF와 LC, NDL은 물론이고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구축한 개인명 전거레코드의 사례에 기초하여 향후 목록규칙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논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접근점 구축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나아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 작성(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도서관 편목사서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 현장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접근점’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관심을 촉발하고, 궁극적으로 KCR4의 개정 과정에서 접근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개인명 전거제어의 목적과 기능

주지하다시피 FRBR은 목록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모형이다. FRBR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서지레코드가 어떤 데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내용적, 물리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FRBR의 등장은 그간의 목록 전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각국의 목록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FRBR이 발표된 후 국제목록원칙(ICP)이 FRBR을 전제로 새로 작성되었고, 영미권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목록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RDA와 MARC21이 FRBR과 FRAD 개념모형의 수용을 위해 전면 개정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FRBR 개념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은 개체-관계 모델(E-R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FRBR에서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된 대상인 ‘개체’와 개

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각 개체를 설명하거나 이를 다른 것과 구분하는 특성인 ‘속성’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은 어떤 것을 독립된 개체로 하고, 어떤 것을 속성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오랜 논의 끝에, FRBR 개발자들은 저작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독립된 개체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이나 단체 등은 전통적으로 전거레코드를 통해 제어하여 왔고, 이들을 별도의 개체로 정의하는 것이 이름 제어의 과정에서 훨씬 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전거레코드나 서지레코드 또는 소장레코드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데에도 이러한 방식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되었다(IFLA 2009a, 2-3). 이렇게 하여 FRBR에서는 개체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1집단 개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2집단 개체는 개인, 가족, 단체로, 그리고 3집단 개체는 개념, 사물, 대상, 장소로 정의하였다.

FRBR에서는 각 개체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이름과 식별기호 등 전거데이터로 다루어야 할 부차적 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후속 연구로 남겨 두었는데, 이에 대한 개념모형이 바로 2009년에 발표된 FRAD(전거데이터의 기능 요건)이다. FRAD에서는 FRBR에서 정의한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과 식별기호, 그리고 그 이름과 식별기호의 바탕이 되는 제어된 접근점 등 전거데이터의 작성과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FRAD 개념모형의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전거레코드가 제공해야 할 기능을 이용자 과업과 연관시켜 정리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IFLA 2009a, 46). 첫째, 이용자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개체를 탐색하고, 둘째, 찾고자 하는 개체에 일치되는 개체를 확인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지닌 둘 이상의 개체를 구분하고, 셋째,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저작 등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마지막으로, 제어된 접근점의 이름이나 이름 형식을 선정하게 된 논거의 정당성을 제시한다(IFLA 2009a, 46).

FRAD에서 정의한 이러한 기능은 전통적인 전거레코드의 기능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이름, 표제, 주제명을 일관된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목록상에 집중”(김태수 2008, 277)하고자 했던 전통에 따라 접근점의 형식이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던 전거레코드가 FRBR의 구현과 관련하여 그 기능이 훨씬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FRBR과 FRAD에서 전거데이터는 FRBR에서 정의한 각 개체를 식별하는 기준점이 되며, 개체의 이름에 대한 전거형식과 그 이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체에 대한 완전한 정보원으로 활용된다. 나아가, 관련 개체를 상호 연결하거나 도서관 간 또는 도서관 외부 데이터와 연결하기 위한 노드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ICP에서는 FRBR에서 정의한 개체인 개인, 가족, 단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대해 제어된 접근점을 제공해야 하며(ICP 6.1.1), 접근점으로 사용된 전거형식의 이름과 이형의 이름, 식별기호를 제어하기 위

해서 전거레코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ICP 6.1.2). 뿐만 아니라 서지레코드 내에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저작의 저작자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기타 자원을 탐색하고 식별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가족, 단체, 주제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선언하였다(ICP 6.2, 7.1.2). 이처럼 전거레코드와 전거레코드에 기록된 전거형식의 접근점은 FRBR 구현에 있어 그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개인’은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체로서 뿐만 아니라 저작과 표현형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요소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FRBR 구현 시나리오에서도, 동명이 인이나 동일인의 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이름을 식별하고, 개체들 간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전거레코드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먼저, 개인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작성하면 이에 기초하여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이 생성된다.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은 다시 저작 또는 표현형 전거레코드에서 저작과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의 기반이 된다.¹⁾ 가령, <그림 1>에서 저작에 책임이 있는 “신경숙”에 대해 이름 전거레코드가 구축되고, 이러한 전거레코드를 토대로 “신경숙, 1963-”이라는 전거형 접근점이 생성된다. 이 접근점은 ‘신경숙’과 관련된 모든 서지레코드에 반영되며, 저작 전거레코드에서 저작의 우선표제와 결합되어 “신경숙, 1963- . 엄마를 부탁해”와 같은 저작 전거형 접근점을 생성한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속성을 추가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신경숙, 1963- . 엄마를 부탁해. 영어”)에서도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은 여전히 중요한 구성요소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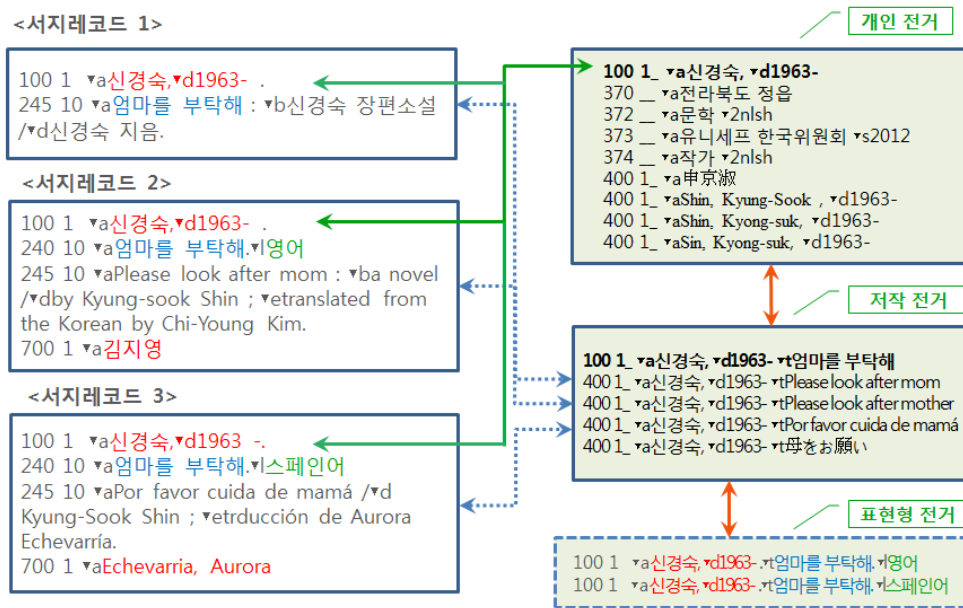
접근점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ICP에서는 전거레코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접근점으로서 ① 전거형 이름, ② 식별기호, ③ 이형 이름 등 세 가지를 정의하였다. 그 외 부차적 속성으로 ① 관련 개체의 이름과 ② 전거레코드 식별기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ICP에서는 부차적 속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FRAD에서 제안한 각 개체별 속성을 참고할 수 있는데, FRAD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 | | |
|--------------|--------------|
| ■ 개인과 연관된 일자 | ■ 소속기관 |
| ■ 개인의 직함 | ■ 주소 |
| ■ 성별 | ■ 개인이 사용한 언어 |

1) 저작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로, 저작에 대한 이형 접근점은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이형표제”로 구성된다. 또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속성(언어, 번역자, 연도 등)을 추가한 것이다. 만일 저작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가 없다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우선표제’만으로, 그리고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우선표제’에 표현형의 속성을 결합하여 구성한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 출생지
- 사망지
- 국가
- 거주지
- 개인의 활동분야
- 전문직종이나 직업
- 전기/내력
- 기타 개인과 관련된 정보



<그림 1> 개인에 대한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및 활용

Ⅲ. RDA 및 NCR 개정(안)의 관련 규정

AACR2 개정위원회에서는 FRBR과 FRAD 개념모형의 수용을 위해 목록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2010년 6월에 후속 규칙인 RDA를 발표하였다. RDA는 AACR2를 대체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으로써 현재 영어권 국가들 뿐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범용적인’ 목록규칙이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에서 RDA의 수용을 위해 RDA에 대한 번역과 평가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RDA를 토대로 목록규칙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낸 곳은 현재 『新しい 日本目録規則』(이하 NCR 개정(안))을 발표한 일본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日本 国立国会図書館 2015)²⁾. 이러한 상황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목록규칙의 국제 기준이 되고 있는 ‘RDA’와 기존 목록규칙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RDA의 토착적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NCR 개정(안)’을 사례로 하여, 각각의 목록규칙에 반영된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정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³⁾

RDA와 NCR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우선 관련 규정의 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RDA에서 개인의 속성과 전거형 접근점은 ‘<제3부> 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 기록’ 중 “9장: 개인의 식별”에 제시되어 있으며, 9장은 다시 ① 개인명(우선 개인명⁴⁾) 및 이형 개인명), ② 개인의 기타 식별 속성, ③ 개인을 나타내는 접근점(전거형 접근점 및 이형 접근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NCR 개정(안)에서 개인은 <제2부>의 속성에서 ‘속성 기록’에 해당하는 부분과 ‘접근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개인의 속성은 “섹션 3: 개인, 가족, 단체” 중 “제6장: 개인”에, 그리고 접근점은 “섹션 5: 접근점” 중 “제26장: 개인”에 각각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에 기초하여, 두 목록규칙을 ① 적용 범위, ② 속성, ③ 우선 개인명의 선정과 형식, ④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 등으로 나누어 상호 비교하였다. 두 목록규칙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기준 및 목록규칙에서의 관련 조항

구 분	RDA	NCR 개정(안)
적용 범위	9.0 목적 및 범위	6.0 통칙
이름 이외의 속성	9.3 ~ 9.18 기타 식별 속성	6.3~6.8 이름 이외의 식별 요소 6.9~6.26 설명관리요소
우선명의 선정과 형식	9.2.2 우선 개인명	6.1 우선 개인명
전거형 접근점	9.19.1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26.1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구축

- 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2013년에 『국립국회도서관의 서지데이터 작성 및 제공을 위한 새로운 전개』를 위한 목록규칙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자료 및 전자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서지데이터 작성 기준 설정’을 위해 ICP와 RDA에 대응하는 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RDA가 사실상의 국제표준에 해당하며 다양한 자료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규칙이고, 전거레코드에 대한 강조와 도서관 이외의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등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RDA를 토대로 하는 목록규칙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는 2013년에 『일본목록규칙 개정의 기본 방침』을 발표하고, 이어 『NCR 개정(안)』 작업에 착수하였다. NCR 개정(안)은 2015년 2월부터 조항별로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2017년 전체 공개를 예정하고 있다.
- 3) NCR 개정(안)은 2015년 2월 27일에 발표된 ‘제6장 개인’(속성)과 ‘제26장 개인’(접근점)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 4) 우선명(preferred name)은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선정한 이름 또는 이름의 형식으로써 전거형 접근점의 기초가 되는 이름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가족, 단체는 복수의 이름을 가지거나 상이한 언어나 문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우선명’으로 선정하고, 우선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름이나 이름 형식은 모두 이형으로 처리한다. 현재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우선명’과 ‘채택명’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우선명’(우선 개인명)으로 칭하였다.

1. 개인의 적용 범위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속성이나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RDA와 NCR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범위는 동일한데, “하나 이상의 필명을 사용하는 개인”으로서 “종교저작에 명시된 인물, 가공의 또는 전설적 인물, 인간이 아닌 실체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DA 9.0, NCR 6.0.15⁵⁾). 이러한 규정에 따라 종교저작에 거명된 “Angel”, 가공의 인물인 “Vampire”, 소설의 등장인물인 “Harry Potter”, 인간이 아닌 실체에 해당하는 “チンパンジー”(침팬지)나 “Henrietta”(고양이 이름) 등도 개인명 전거레코드의 작성 대상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A Teacher of Book-Keeping”과 같이 이름이 아니라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 혹은 “69 Cherry”와 같이 성과 이름으로 구성되지 않은 이름 등 ‘개인으로 인식되는 정체성을 가진 대상’도 모두 개인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DA 9.2.2.25).

이에 더해,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개인이 하나 이상의 신원을 가지거나 각 신원에 대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이름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별도로 작성하되, 이름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전거형 접근점을 이용하여 상호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DA 9.2.2.8, NCR 6.1.3.1B). 이러한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필명을 사용하거나 필명과 실명을 동시에 사용하면 관련 자료에서 상이한 이름이 발견되는 경우 각각의 이름에 대해 전거레코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RDA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항도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나의 필명만을 사용하고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명에 대한 전거레코드만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RDA 9.2.2.8).

2. 개인의 속성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FRAD에서 제시한 개인의 속성을 바탕으로 개인명 전거레코드에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FRAD 개념모형에서는 이름과 식별기호를 독립된 개체로 선언하고 있어 개인의 속성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개인의 속성으로 취급하고 있다. RDA와 NCR 개정(안)에 제시된 개인의 속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이들 속성 중에서 ‘우선 개인명’, ‘출생일자’, ‘사망일자’, ‘개인의 직함’, ‘식별기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핵심요소로, 그리고 ‘개인명의 완전형’,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 ‘전문직종이나 직업’은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개체와 구별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5) 일본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변경하여 RDA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개인의 범주를 NCR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日本図書館協會 目録委員会 2015).

〈표 2〉 개인의 속성 비교

RDA		NCR 개정(안)	
이름	우선 개인명* 이형 개인명	이름	우선 개인명* 이형 개인명
기타 식별속성	개인과 연관된 일자 - 출생일자* - 사망일자* - 개인의 활동시기 개인의 직함* 개인명의 완전형**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 성별 출생지 사망지 개인과 연관된 국가 거주지 등 개인의 주소 소속 개인의 언어 개인의 활동분야 전문직종이나 직업** 전기정보 개인 식별기호*	이름 이외의 식별요소	개인과 연관된 일자 - 출생일자* - 사망일자* - 개인의 활동시기 직함* 직업 전문분야** 일본인의 세계(世系)** 완전형**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
		설명 관리요소	성별 출생지 사망지 개인과 연관된 국가 거주지 등 주소 소속 개인의 언어 약력(전기정보) 식별자* 사용범위 사용기한 식별상태 이름 미판별 표시 출전(참조정보원) 목록자 주기

*는 핵심요소, **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개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거나 개인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핵심요소로 기술함.

밑줄은 두 규칙 간의 차이를 표시한 것임.

NCR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RDA의 전폭적 수용을 고려한 목록규칙이기 때문에 속성에 있어 RDA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다. 다만, 속성의 구분이나 일본의 문화를 반영하는 부분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속성에 있어 두 목록규칙 간의 차이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RDA에서는 이름과 연관된 로마 숫자(예: Elizabeth I)를 이름의 주된 부분으로 취급하지만(RDA 9.2.2.8), NCR 개정(안)에서는 세습되는 ‘일본인의 세계(世系)’(예: 佐藤武重 2代目)를 이름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식별요소로 정의하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 속성을 핵심요소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

6) 일본인의 이름 중에는 그 가문의 몇 대손임을 나타내는 ‘代目’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2014년 2월에 발표된 NCR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일본인의 世系를 이름 이외의 식별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름과 연관된 숫자’에 포함하여 이름의 일부분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는 ‘일본인의 世系’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앞으로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日本図書館協會 目録委員会 2015a, 23).

고 있어 이 또한 RDA와 구별되는 점이라 볼 수 있다(NCR 6.6.1). 둘째, RDA에 정의된 ‘개인의 활동분야’와 ‘전문직종이나 직업’이 NCR 개정(안)에서는 ‘직업·전문분야’로 통합되어 있다. 가령, RDA에서는 “Mathematics”, “Political science”와 같은 학문분야나 “Poetry”, “Music criticism”과 같은 개인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 등을 ‘개인의 활동분야’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Musician”이나 “Writer”과 같은 ‘전문직종이나 직업’ 속성과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이에 반해, NCR 개정(안)에서는 ‘직업·전문분야’에 “辯護士”, “翻譯家”, “物理學”과 같은 예시를 포함하고 있어, RDA에서 제시하는 ‘활동분야’와 ‘직업’ 속성을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RDA에서는 개인의 속성을 ① 이름과 ② 이름 이외의 기타 식별속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NCR 개정(안)에서는 ① 이름, ② 이름 이외의 식별요소, ③ 설명·관리요소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2> 참조). 이에 따라 RDA에서 기타 식별속성으로 간주되는 성별, 출생지, 사망지, 국가, 소속, 언어 등이 NCR 개정(안)에서는 설명·관리요소에 분류되어 있다. 넷째, RDA에서는 각 속성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나 데이터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전거레코드의 관리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지만(RDA 8.8~8.13), NCR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인의 속성에 포함하고 있다(NCR 6.18~6.23). 따라서 RDA에서 개인의 속성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범위’, ‘사용기한’, ‘식별상태’, ‘이름 미판별 표시’, ‘출전(참조정보원)’, ‘목록자 주기’가 NCR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속성에 포함되어 있다.

3. 우선 개인명의 선정과 기록

개인의 이름은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로 사용하는 ‘우선 개인명’과 이형 접근점의 근거로 사용하는 ‘이형 개인명’으로 구분된다. 개인명을 기록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이름 또는 이름의 형식을 우선 개인명에 기록하고, 우선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름이나 이름 형식은 모두 이형 개인명에 기록한다. 이처럼 개인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 문자열 가운데 특정 이름이나 이름 형식을 우선 개인명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두 목록규칙에서는 이러한 우선 개인명의 선정 규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RDA 9.2.2.3, NCR 6.1.3)을 우선 개인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선 개인명으로 선정되는 이름은 본명이나 필명, 작위, 별명, 이니셜 등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 동일 이름이 상이한 형식을 가지는 경우(RDA 9.2.2.5, NCR 6.1.3.2), (2) 동일 개인이 복수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RDA 9.2.2.6, NCR 6.1.3.1), (3) 이름이 변경된 경우(RDA 9.2.2.7, NCR 6.1.3.1A), (4) 개인이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경우(RDA 9.2.2.8, NCR 6.1.3.1B) 등으로 구분하여 우선 개인명을 선정하는 규정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동일한 이름이 하나 이상의 상이한 형식으로 알려진 경우에 대해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1) 이름의 형식이 완전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우, (2) 개인과 연관된 자원에서 다른 언어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3) 개인명이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선호하는 문자와 다른 문자로 발견되는 경우, (4) 개인명에 이형 철자가 발견되는 경우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RDA와 NCR 개정(안)의 규정을 비교·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NCR 개정(안)은 RDA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RDA의 규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이 RDA 보다 상세하거나 RD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우선순위가 NCR 개정(안)에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름이 둘 이상의 문자로 된 경우에 대해 NCR 개정(안)의 규정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의 이름을 구분하여 우선명의 선정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일본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인 읽기 음(読み)에 대해 상세히

<표 3>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1) :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구분	RDA	NCR 개정(안)
완전성에 따른 차이	① 가장 자주 발견되는 형식 ② ①을 쉽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최근의 형식	① 좌동 ② 좌동 ③ ②를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경우, 보다 완전한 형식
언어에 따른 차이	자원 대부분의 언어에 해당하는 형식 ※별법: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우선하는 언어	① 가장 자주 발견되는 언어 ② ①을 쉽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인의 거주국이나 활동국가에서 가장 잘 발견되는 언어 ③ ②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정하는 언어 ※별법: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정하는 언어
문자에 따른 차이	非우선문자는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선정한 체계에 따라 번자 <별법> 참고정보원에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우선하는 언어로 확립된 형식의 이름이 있는 경우, 그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	일본인의 이름은 한자와 가나가 혼합된 형식 - 그 음은 우선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표시를 우선적으로 선택 중국인명은 한자형(정체자간체자) - 그 음은 일본어음, 모국어음의 순서로 선택 한국인명은 한자형 또는 한글형 - 한자형의 음은 한국어 음, 일본어 음의 순으로 선택 기타 외국인명은 원어 형식 또는 번자 형식 ※별법: 한자가 불분명한 중국인명은 가나 형식, 한글이 포함된 한국인명은 한자와 가나가 혼합된 형식, 기타 외국인명은 가나 형식
철자에 따른 차이	이형 철자가 존재하고, 그 이형이 번자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첫 번째로 입수한 자원에서 발견되는 이름 형식	① 좌동 ② 번자의 차이에 의한 경우 데이터 작성기관이 정하는 번자의 형식 또는 자주 발견되는 이름 형식

※ 표 안의 원괄호 숫자는 우선순위를 나타냄

7) 일본어에서 사람의 이름이나 어려운 한자는 그 읽기 음(음독, 훈독)이 특수하거나 자의적인 읽기가 많아 일반적으로 ‘村上春樹’와 같이 한자에 그 읽기 음을 병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어의 특성에 따라 목록규칙에서도 읽기 음의 표기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NCR 개정(안)에서는 ‘村上春樹 || むらかみはるき’와 같이 한줄 쓰기 방식으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의 내용 중 문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에 대한 규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DA에서는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선호하는 문자와 다른 문자로 발견되는 경우 기관에서 선정한 체계에 따라 해당 이름을 번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RDA를 적용하는 영미권 도서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로마자인 한국인, 일본인, 아랍인 등의 이름에 대해 원문자로 된 이름 대신 로마자로 번자된 문자를 우선 개인명으로 선정하고 있다(예: ‘이승만’의 우선명 : Yi Süng-man). 이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NCR 개정(안)에서는 “일본어의 특성과 출판물의 유형을 고려하여”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을 일본인명, 중국인명, 한국인명, 기타 외국인명 등으로 나누고, 이름에 사용된 문자별로 우선명의 선정 규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표 4> 참조).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어나 번자 형식을 우선 개인명으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일본어 가나 형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현재 목록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日本図書館協會 目録委員会 2015a, 9).

<표 4> NCR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문자에 따른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⁸⁾

구분	기준	예시	
일본인	자료에 로마자가 표기되어 있으나, 참고정보원에서 한자와 가나가 혼합된 형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	한자와 가나 + 일본어 음	高橋, 健三 タカハシ, ケンゾウ
	히라가나로 된 이름 형식만 존재하는 경우	히라가나	いしい, ひさいち
	한자와 가나가 혼합된 형식이 불분명한 경우	로마자	Imajo, Jun
중국인	자료에 한자 형식이 발견되는 경우	한자 + 한자의 일본어 음	吳, 昌碩 ゴ, ショウセキ
	한자 형식이 불분명한 경우	가나	チャン, リンリン
	한자와 가나 형식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로마자	Lee, Yuan Chuan
한국인	자료에 한자 또는 한글 형식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한국어 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한자 또는 한글 + 한자의 한국어 음	金, 達壽 김, 달스
	자료에 한자 또는 한글 형식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한국어 음을 알 수 없는 경우	한자 + 한자의 일본어 음	金, 洪信 킨, 코우신
	한글 형식만 발견되는 경우	한글	김, 상환
	한자 또는 한글 형식이 불분명하고 자료에서 가나 형식이 발견되는 경우	가나	チャン, キホン
	한글과 한자 형식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로마자	Lee, Seo-Hang
기타 외국인	일본인·중국인·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원문자 또는 번자	Хлебников, В елимир [원문자] Ulanova, Galina Sergeevna [번자]

8) NCR 개정(안)의 6.1.3.2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법은 <표 4>에 포함하지 않았음

한편,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외에, 동일인이 상이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한 개인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의 이름을 우선명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수의 신원(정체성)에 따라 상이한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름을 별개의 인물로 간주하여 각각에 대한 우선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 개인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RDA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을, NCR 개정(안)에서는 “최근에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을 우선명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별이 쉽지 않은 경우 우선명을 선정하는 우선순위도 제시하고 있는데, <표 5>에서 보듯이 우선순위에 있어 RDA와 NCR 개정(안)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름을 변경한 개인이나 신원에 따라 상이한 이름을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우선명의 선정 기준은 RDA와 NCR 개정(안)이 동일하다.

<표 5>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2)

구분	RDA	NCR 개정(안)
동일 개인의 복수의 이름	“분명하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 ① 개인과 연관된 자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②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③ 가장 최근의 이름	“최근에 가장 잘 알려진 이름” ①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② 그 개인과 연관된 자료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름 ③ 최근의 이름
이름의 변경	가장 최근의 이름 <예외> 변경 전 이름이 더 잘 알려졌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변경 전 이름	좌동 ※별법: 변경 전, 변경 후 이름으로 각각의 저작을 저술하거나 양쪽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각각의 이름을 우선명으로 선정하고 상호 연결
복수의 신원(정체성)	각 신원과 연관된 이름을 각각 우선명으로 기록 <예외> 개인이 하나의 필명만 사용하고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필명에 대해서만 전거데이터 작성	좌동

이러한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에 더해, 두 목록규칙에서는 우선명의 기록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RDA와 NCR 개정(안) 모두 우선명의 기록 방법에 대해 “성 다음에 쉼표를 찍고 이름의 다른 부분을 기록한다”(RDA 9.2.2.9, NCR 6.1.4)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 또는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개인명에 존칭이나 호칭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 또는 이름을 기록한 후 쉼표, 빈칸으로 구분하여 나머지 존칭이나 호칭을 기록하도록 규정 등도 수록하고 있다(예: Read, Miss). 두 목록규칙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세부 규정, 가령 RDA에는 성(姓)에 하나 이상의 접두사가 붙은 경우, 성에 관사나 전치사가 포함된 경우, 성에 접두사가 붙임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기술 규정이, 그리

고 NCR 개정(안)에는 일본인명, 중국인명, 한국인명의 한자와 가나 형식, 로마자 형식 등 문자 형식에 대한 기술 규정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는 점이다. NCR 개정(안)에서는 발음이 문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 개인명으로 선정된 일본인명·중국인명·한국인명에 읽기 음을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도 가지고 있다.

4.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

개인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은 ① 특정 개인을 발견하고, ② 특정 개인과 연관된 자원을 발견하고, ③ 특정 개인을 주제로 하는 자원을 발견하고, ④ 특정 개인과 연관된 다른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NCR 26.0). 이러한 전거형 접근점은 우선 개인명에 기타 식별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한 우선명이 다른 개인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부가해야 할 식별요소로 다음 <표 6>과 같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이들 식별요소를 우선명에 부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DA 9.19.1.1, NCR 26.1A).

<표 6> 전거형 접근점의 기타 식별요소

구분	RDA	NCR 개정(안)
식별요소	개인과 연관된 직함이나 기타 표시 출생일자 및 사망일자 개인명의 완전형 개인의 활동시기 및 전문직종이나 직업 계급, 명예, 관직 등의 기타 용어 기타 표시	개인의 직함 일본인의 세계(世系) 생몰년 개인명의 완전형 활동시기 직업·전문분야 기타 식별요소

우선 개인명에 부가하는 기타 식별요소에 대한 규정을 비교해 보면, RDA와 NCR 개정(안)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RDA의 경우 <표 6>에 제시된 기타 식별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RDA 9.19.1.2), NCR 개정(안)에서는 <표 6>의 식별요소를 ‘우선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NCR 26.1A). 이러한 식별요소는 전거레코드에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거나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혹은 두 가지 방식 모두로 기록할 수 있다. 목록규칙에 포함된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 기준과 사례

기준		예시
개인의 개념을 전달하지 못하는 구나 통칭으로 구성된 이름	개인임을 나타내는 전문직종이나 직업을 부가	Big Hand (Musician)
	가공 또는 전설적 인물의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어구를 부가	G-8 (Fictitious Character)
	인간이 아닌 실체의 경우 그 종류를 나타내는 어구를 부가	Splash (Dog)
왕족, 귀족, 성직자 등	왕족, 귀족, 성직자 등을 나타내는 직함과 생몰년을 부가	Elizabeth II, Queen of Great Britain, 1926-
동명이인	생몰년을 부가	鈴木, 正義, 1911- 鈴木, 正義, 1915-1993
	동일한 생몰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전문직종이나 직업을 부가	中村, 功, 1935- 中村, 功, 1935- 醫師
	이름의 완전형을 부가	Eliot, T. S. (Thomas Stearns), 1888-1965
기타	성직자, 초자연적 존재(영혼), 성전 등에 거명된 인물의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어구를 부가	La Salle, Jean Baptiste de, Saint, 1651-1719 Garland, Judy (Spirit) Adam (Biblical figure)
	일본인의 세계가 있는 경우 이를 부가 (NCR 개정(안)만 해당됨)	林家, 正蔵 9代目

IV. 개인명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의 구축 사례

3장에서 살펴본 목록규칙을 토대로 하여, 이 장에서는 미의회도서관(LC)과 일본국립국회도서관(NDL)에서 구축한 개인명 전거레코드의 실제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재 LC에서는 앞서 살펴본 RDA 외에, RDA에서 언급하지 않은 규정이나 별법의 적용을 위해 협동편목 지침인 『LC-PCC Policy Statements(LC-PCC PSs)』와 이름 전거레코드의 생성에 관한 LC의 입력지침인 『Descriptive Cataloging Manual(DCM) Z1』도 참조하고 있다. 전거레코드의 인코딩 스킴으로는 『MARC21 Authority Format』과 MARC21에 대한 LC 입력지침인 『LC Guidelines Supplement to MARC21』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NDL은 NCR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NCR 개정(안)에 제시된 개인의 속성이나 전거형 접근점이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 전거데이터 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명 전거레코드는 RDF/XML로 표현되어 있어 전거레코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요소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NDL의 개인명 전거레코드는 VIAF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MARC forma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A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우선 개인명에 기타 식별요소를 부가하여 전거형 접근점을 생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식별요소(앞의 <표 6> 참조)를 임의로 추가할 수 있는 ‘임의추가’ 규정을 가지고 있다(RDA 9.19.1.1). 이러한 RDA의 규정에 대해, LC 입력지침에서는 개인의 ‘출생일자’나 ‘사망일자’, ‘개인의 직함’, ‘개인과의 연관된 기타 표시’를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반드시 입력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의 활동시기’, ‘개인명의 완전형’, ‘개인의 활동 분야’, ‘전문직종이나 직업’ 등을 부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2015). LC에서 구축한 전거형 접근점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LC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

부가 식별요소	사례
출생일자나 사망일자	100 1_▼aCarter, Jimmy,▼d1924-
개인의 직함	100 0_▼aElizabeth▼bII,▼cQueen of Great Britain,▼d1926-
개인명의 완전형	100 1_▼aEliot, T. S.▼q(Thomas Stearns),▼d1888-1965
개인과의 연관된 기타 표시	100 1_▼aPresley, Elvis,▼d1935-1977▼c(Spirit)
전문직종이나 직업	100 1_▼aFraser, Caroline▼c(Photographer)

반면, NDL의 경우 출생일자나 사망일자를 제외하고, LC와 같은 다양한 식별요소가 전거형 접근점에 부가되어 있지 않다. 이는 RDA의 규정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LC와 달리, 아직까지 NCR 개정(안)이 NDL 전거레코드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NDL에서 구축한 전거형 접근점에는, NCR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일본인, ② 중국인, ③ 한국인, ④ 기타 외국인에 대한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이나 우선 개인명으로 선정된 이름에 대한 읽기 음을 병기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가령, <표 9>에서 보듯이, 전거형 접근점에 포함된 우선 개인명은 국가별 문자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읽기 음도 기록되어 있다. 다만, NCR 개정(안)에서 “村上春樹 || むらかみはるき”와 같이 표기하도록 한 규정이 전거레코드에서는 100 필드와 880 필드 간의 연계를 통해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의 사례에서 100 필드의 식별기호 ▼6은 “880-01”(880 필드 중 첫 번째 필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880 필드에도 식별기호 ▼6에 “100-01”가 기술되어 있어 두 필드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에 따라 우선 개인명인 “村上, 春樹”와 그 읽기 음인 “ムラカミ, ハルキ”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이들 데이터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표 9> NDL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⁹⁾

구분	사례
일본인명	100 1_ ▼6880-01 ▼a村上, 春樹, ▼d1949- 880 1_ ▼6100-01/ ▼1 ▼aムラカミ, ハルキ, ▼d1949-
중국인명	100 1_ ▼6880-01 ▼a吳, 昌碩, ▼d1844-1927 880 1_ ▼6100-01/ ▼1 ▼aゴ, ショウセキ, ▼d1844-1927
한국인명	100 1_ ▼6880-01 ▼a李, 御寧, ▼d1934- 880 1_ ▼6100-01/ ▼1 ▼aイ-, オリョン, ▼d1934-
기타 외국인명	100 1_ ▼6880-01 ▼aElizabeth ▼b2世, ▼d1926- ▼cイギリス女王 880 1_ ▼6100-01/ ▼1 ▼aElizabeth ▼b2セイ, ▼d1926- ▼cイギリス ジョオウ

이렇게 생성된 전거형 접근점은 자원을 집중하고 자원 간의 다양한 관계를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전거형 접근점을 이용하여 개체 간의 관계를 기술한 LC의 사례는 다음 <표 10>과 같다. 첫 번째 예시는 본명 “King, Stephen, 1947-”과 필명 “Bachman, Richard”에 대한 전거레코드가 각각 생성되어 있고, 500 필드를 이용하여 관련 개인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을 상호 연결한 사례이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전거형 접근점인 “Nibley, Hugh”와 그와 관련된 ‘가족’의 전거형 접근점(“Nibley (Family)”)이, 마지막 예시에서는 개인과 그 개인이 설립한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Facebook (Firm)”)이 연결되어 있다. 관련

<표 10> LC 전거형 접근점을 이용한 관계 기술

구분	사례
동일 개인의 상이한 이름 관계	100 1_ ▼aKing, Stephen, ▼d1947- 500 1_ ▼wr ▼iAlternate identity: ▼aBachman, Richard 100 1_ ▼aBachman, Richard 500 1_ ▼wr ▼iReal identity: ▼aKing, Stephen, ▼d1947-
특정 개인과 다른 개인의 관계	100 1_ ▼aNibley, Hugh, ▼d1910-2005 500 3_ ▼iDescendants: ▼aNibley (Family : ▼gNibley, Hugh, 1910-2005) ▼wr
특정 개인과 관련 단체와의 관계	100 1_ ▼aZuckerberg, Mark, ▼d1984- 510 2_ ▼iFounded corporate body: ▼aFacebook (Firm) ▼wr

9) NCR 개정(안)에서 중국인명은 한자(정체자 또는 간체자)를 우선명으로 선정하고, 그 음은 일본어 음, 중국어 음의 순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표 9>에서 중국인 화가 “吳昌碩”에 대해서는 한자에 대한 일본어 음을 병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인명은 한자 또는 한글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하고, 그에 대한 읽기 음은 한국어 음, 일본어 음의 순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발음인 “이어령”에 해당하는 읽기 음이 880 필드에 가나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기타 외국인명의 경우 우선명을 원어 또는 번자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우선명은 원어 “Elizabeth”로, 그 외의 식별요소는 가나 문자로 기록하고 있다.

개체들 간의 관계는 RDA와 MARC21 입력지침에 따라 500 필드의 ▼w와 ▼i에 ‘관계표시어’ 및 ‘참조지시문’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NDL의 경우 FRAD와 RDA를 수용하여 새로 개정된 목록규칙이 아직 전거레코드에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관계 기술의 사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전거레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전거레코드에 적용되어 오던 개인의 ‘필명관계’ 정도이다. 이러한 개인 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레코드 제어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연결하고 있을 뿐 관련 개체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
100 1_ ▼aKing, Stephen, ▼d1947-
500 1_ ▼aBachman, Richard ▼w04626151
```

```
100 1_ ▼aBachman, Richard
500 1_ ▼aKing, Stephen, ▼d1947- ▼w00445718
680 __ ▼i別名: King, Stephen, 1947-
```

2. 전거레코드의 사례

위와 같은 전거형 접근점을 포함하는 전거레코드에는 앞서 언급한 개인의 다양한 식별속성이 기술되어 있다. LC에서 구축한 개인명 전거레코드의 사례는 다음 <표 11>과 같다.¹⁰⁾ 전거형 접근점에는 우선명으로 선정된 “Murakami, Haruki”에 ‘출생년도’가 부가되어 있으며, 개인의 기타 식별속성으로 ‘개인과 관련된 장소’, ‘전문직종이나 직업’, ‘성별’, ‘개인의 언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거형 접근점에 대응되는 이형 접근점(400 필드)과 이들 데이터의 출처에 해당하는 정보원(670 필드) 등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개인의 전거레코드에서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 및 표현형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전거형 접근점의 기반이 된다. <표 11>에 기술된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은 <표 12>와 같은 저작 및 표현형 전거레코드에서 저작 및 표현형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의 기본요소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0) NCR 개정(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NDL의 전거레코드에서는 다양한 식별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전거레코드에는 전거형과 이형, 참고정보원 정도만 기술되어 있어, 전거레코드의 사례는 LC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1〉 LC의 개인명 전거레코드 사례

개인명 전거레코드의 작성 사례	설명
046 __ ▾f19490112	연도 부호(▾f 출생일) 전거형 접근점 관련 장소 전문직종이나 직업 성별 개인의 언어 이형 접근점
100 1_ ▾aMurakami, Haruki, ▾d1949-	
370 __ ▾aFushimi-ku (Kyoto, Japan) ▾eAshiya-shi (Japan) ▾2naf	
374 __ ▾aAuthors ▾2lcs	
375 __ ▾amale	
377 __ ▾ajpn	
400 1_ ▾aCunshang, Chunshu, ▾d1949-	
400 1_ ▾aMurakami, Kharuki, ▾d1949-	
400 1_ ▾aМу р а к а м и, Х а р у к и, ▾d1949-	
667 __ ▾aMachine-derived non-Latin script reference project.	
667 __ ▾aNon-Latin script references not evaluated.	
670 __ ▾aMurakami, R. Wōku, donto ran, 1981 (a.e.) ▾bt.p. Murakami Haruki) p. 155 (b. 1/49; writer)	
670 __ ▾aOkhota na ovetš, 2003: ▾bt.p. (Kharuki Murakami)	
	정보원

〈표 12〉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을 이용한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LC의 사례)

구분	저작 및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
저작 1	100 1_ ▾aMurakami, Haruki, ▾d1949- . ▾0(viaf)108238901 ▾t1Q84
표현형 1	100 1_ ▾aMurakami, Haruki, ▾d1949- . ▾0(viaf)108238901 ▾t1Q84 ▾lKorean ▾f2010
표현형 2	100 1_ ▾aMurakami, Haruki, ▾d1949- . ▾0(viaf)108238901 ▾t1Q84 ▾lSpanish ▾s(Alvarez Martínez : ▾f 2011)
표현형 3	100 1_ ▾aMurakami, Haruki, ▾d1949- . ▾0(viaf)108238901 ▾t1Q84 ▾lRussian ▾f2012
저작 2	100 1_ ▾aMurakami, Haruki, ▾d1949- . ▾0(viaf)108238901 ▾t레キシントンの幽霊
표현형 1	100 1_ ▾aMurakami, Haruki, ▾d1949- . ▾0(viaf)108238901 ▾t레キシントンの幽霊 ▾lRussian ▾f2003
저작 3	100 1_ ▾aMurakami, Haruki, ▾d1949- . ▾0(viaf)108238901 ▾t風の歌を聴け
표현형 1	100 1_ ▾aMurakami, Haruki, ▾d1949- . ▾0(viaf)108238901 ▾t風の歌を聴け ▾lRussian ▾f2003

V. 한국목록규칙의 개정을 위한 논의

우리나라 목록규칙 중 접근점(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은 1960년대에 발간된 KCR 초판과 수정판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조차도 카드목록에서 표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ICP와 FRBR/FRAD에서 추구하는 접근점의 이념과 기능을 수행하기에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거레코드를 통한 제어 과정도 없이 서지레코드에 접근점을 '임의로' 기술하여 온 우리 도서관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각 개체를 식별하거나 구분하고, 나아가 관련 개체를 상호 연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의 접근점을

활용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에 FRBR과 FRAD를 기본 원리로 하는 RDA의 구조를 따르면서 전거형 접근점 및 전거레코드에 포함될 식별요소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13),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기초하여 개인의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KCR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편목의 역사에서 목록의 기능을 처음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목록규칙은 가장 최신판에 해당하는 KCR 4판이다. KCR4에서는 그간의 목록전통과 목록규칙의 제정 의도를 고려하여 목록의 기능을 첫째, “특정 저자의 저작과 특정 표제의 저작, 특정 주제의 저작을 탐색”하고, 둘째,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모든 상이한 판을 목록 상에 집중”하는 것이라 정리하였다. KCR4에 담겨 있는 이러한 기능은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에 견주어보아도 크게 손색이 없어 보인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FRBR과 FRAD, ICP에서 강조하고 있는 ‘탐색’과 관련 자료의 ‘연결’ 기능이 전면에서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KCR4에서 이러한 목록의 기능을 효과적인 수행하기 위한 기본요소로 ‘접근점’과 ‘참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접근점을 “검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요소”(한국도서관협회 2003, 5)로, 참조를 “관련된 접근점 간을 연결하기 위한 기록”(한국도서관협회 2003, 4)이라 정의하고 있어, 이 또한 접근점에 관한 최근의 논의나 접근점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이다.¹¹⁾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KCR4에서는 무엇을 접근점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참조지시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실무 적용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²⁾ 가령, “목록의 기능 수행에서 접근점(표목)들 간의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본’ 표목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지만, KCR4에서는 ‘접근점’에 해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아예 결여하고 있다. 또한,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할 것을 명시하였지만, KCR4나 그 후속 논의에서 전거

11) KCR4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록의 기능이나 이에 내포된 의미가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구체성이나 용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2) KCR4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편목사서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접근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기본표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목록규칙을 따른다 하더라도, 부출표목(KORMARC의 7XX)을 기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접근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현행 목록규칙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KERIS 종합목록 표준화분과위원회 활동 중인 위원들(6개 대학도서관 소속 편목사서)은 “도서관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접근점을 기술하고 있어 목록의 표준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형식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접근점을 선정하고 기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면담일시 : 2015년 11월 25일 10:30~13:00, 면담장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 간의 연결기법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접근점의 대표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기능 또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논의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목록에 관한 국제적인 원칙과 그에 따른 목록규칙에서는 이러한 접근점에 관한 세부 규정을 오히려 강화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ICP에서는 “접근점은 제어될 수도, 제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ICP 6.1), “기술대상인 서지자원을 탐색하고 식별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은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으로 서지레코드에 반영되어야 하며”(ICP 6.2.2), 이 때 “전거형 접근점은 반드시 표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ICP 6.3.1)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CP에서는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과 더불어 저작자 이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을 “서지레코드에 반영해야 할 필수 접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ICP 7.1.2.1).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 RDA와 NCR 개정(안)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속성을 전거레코드에 기술하고, 그로부터 전거형 접근점을 생성하여 서지레코드에 반영하는 세부 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목록규칙도 국제적인 흐름을 수용하여 접근점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는 ICP나 RDA, NCR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원칙이나 속성 등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되, 우리의 목록전통과 관행을 토대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가령, KCR 4판에서는 “저자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고”, “대상 자료에 기재된 모든 저자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근점에 대해서도 “모든 접근점이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KCR4의 전통을 유지한다면, 개정될 목록규칙에서도 접근점으로 간주되는 모든 저자(저작자)에 대해 전거레코드를 필수적으로 생성하도록 한 다음,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이들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ACR의 ‘기본표목’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RDA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 저작의 창작에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는 경우, “주된 책임을 가진” 또는 “첫 번째로 이름이 표시된” 개인을 기준으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DA 6.27.1.3). 넷 이상의 개인이 참여한 공동 저작이나 영화, 비디오, 비디오 게임 등의 영상 작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표제만으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명의 개인이 하나의 저작을 공동으로 창작한 <표 13>의 예시에서, 첫 번째 저작자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만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요소로 기술되고, 두 번째 저작자와 세 번째 저작자는 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아예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NCR 개정(안)에서는 복수의 저작자를 전거형 접근점에 모두 기술하는 방안을(NCR 개정(안) 22.1.2), 그리

고 Maxwell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저작자를 해당 저작에 대한 ‘이형 접근점’에 기술하는 대안(Maxwell 2013, 510)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13> 참조).

이렇듯 RDA는 기본적으로 AACR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표목’을 적용하지 않는 우리의 목록환경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접근점 간의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KCR4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표 13>의 사례에서 3명의 저작자에 대한 전거 레코드를 모두 작성하고, 3명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과 우선표제를 각각 결합하여 3개의 저작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4명 이상의 저작에 의한 공동저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후 목록규칙의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공동 저작에 대한 개인 및 저작 전거형 접근점 예시

<대상자료> 행정학개론 / 박연호, 이종호, 임영제 공저		
RDA의 개인 전거형 접근점	RDA 저작 전거형 접근점	NDC 개정(안)
100 1♣ ▼a박연호, ▼d1932-	100 1♣ ▼a박연호, ▼d1932- . ▼t행정학개론	100 1♣ ▼a박연호, ▼d1932- ; ▼a이종호, ▼d1938- ; ▼a임영제, ▼d1942- . ▼t행정학개론
100 1♣ ▼a이종호, ▼d1938-		
100 1♣ ▼a임영제, ▼d1942-		
Maxwell(2013)의 제안	KCR 개정에서의 논의	
100 1♣ ▼a박연호, ▼d1932- . ▼t행정학개론	100 1♣ ▼a박연호, ▼d1932- . ▼t행정학개론	
400 1♣ ▼a이종호, ▼d1938- . ▼t행정학개론	100 1♣ ▼a이종호, ▼d1938- . ▼t행정학개론	
400 1♣ ▼a임영제, ▼d1942- . ▼t행정학개론	100 1♣ ▼a임영제, ▼d1942- . ▼t행정학개론	

다음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 개인명의 선정과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전거레코드와 전거형 접근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속성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화된 이름과 이름의 형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KCR 수정판 이후로 이에 대한 기술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그동안 “나름의 기준에 따라” 접근점의 형식을 정하여 목록에 반영하여 왔다. 그러다보니 동일한 이름에 대한 상이한 형식이 다수 존재하고, 전거레코드를 통한 접근점 제어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명의 선정을 위한 규정으로, RDA나 NCR 개정(안)과 같이 (1) 동일한 이름의 상이한 형식(완전성, 언어, 문자, 철자에 의한 차이), (2) 동일 개인의 복수의 이름, (3) 이름의 변경, (4) 복수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언어와 문자에 따른 차이에 있다. 가령, 일본 문학가인 ‘川端康成’에 대해 국내 도서관들은 일본 한자에 대한 우리 음인 ‘천단강성’이나

일본 읽기음의 한글 표기인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리고 로마자 번자 표기인 ‘Kawabata Yasnari’와 같이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중국 문학가 ‘魯迅’에 대해서도 ‘노신’, ‘로신’, ‘루쑤’, ‘Lu Xun’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무에서의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고 관련 자료들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개정될 목록규칙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³⁾

이름의 선정과 형식에 대해서는 ICP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ICP에서는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하되”,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하여” 이름을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ICP 6.3.2). ICP에서는 상이한 이름 중 하나의 이름을 선정하기 위한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구현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름이거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고 널리 인정되는 이름”(ICP 6.3.3)을 우선명으로 기록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름의 형식에 대해서도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그 개인과 주로 관련된 국가나 언어의 관행에 따를 것”(ICP 6.3.4)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ICP의 권고를 참고하되, 이와 관련된 규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와 가장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일본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NCR 개정(안)에서는 일본 목록의 전통과 출판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개인명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규정을 자국민인 일본인, 동일 한자권에 속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그외 기타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에 대해서는 ‘자국어’를 우선명으로 기술하되 그에 해당하는 읽기 음을 일본어로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어 또는 번자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외국인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을 NDL에서 확인해 보면, 로마자(라틴 문자) 이름은 일반적으로 로마자 그대로, 자국의 이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키릴 문자나 아랍 문자 등의 이름은 번자 형식을 우선명으로 채택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LC의 경우도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다. 다음 <표 14>에 나타나 있듯이, 로마자 이외에 자국의 이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키릴 문자, 아랍문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 대해 ‘번자’ 형식을 우선 개인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LC와 NDL에서는 ‘원어’ 또는 ‘번자’를 우선 개인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표 14>에 제시된 개인명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우선명을 VIAF를 통해 확인해 보면, 대부분 ‘원어’ 또는 ‘번자’ 형식 중 하나를 우선

13) KERIS 종합목록 표준화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편목사서들은 접근점의 비일관성과 적절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러한 표준 규정이 실령 자관에서 정한 기준과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표준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다.

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번자 체계의 차이로 인한 표기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국민에게 익숙한 언어나 문자는 ‘원어’를, 자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나 문자는 ‘번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원어나 번자 이외에 우선 개인명을 ‘자국어’(현지 음에 대한 자국어 표기)로 기술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러시아,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라트비아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 우선 개인명의 선정과 형식

구분	LC	NDL
Agatha Christie	Christie, Agatha, 1890-1976	Christie, Agatha, 1890-1976
Joël Dicker	Dicker, Joël, 1985-	Dicker, Joël, 1985-
Александр Исаевич Солженицын	Solzhenitsyn, Aleksandr Isaevich, 1918-2008	Solzhenitsyn, Aleksandr Isaevich, 1918-2008
نجيب محفوظ	Mahfuz, Najib, 1911-2006	Mahfuz, Najib, 1911-2006
이문열	Yi, Mun-yŏl, 1948-	李, 文烈, 1948-
魯迅	Lu, Xun, 1881-1936	魯迅, 1881-1936
村上, 春樹	Murakami, Haruki, 1949-	村上, 春樹, 1949-

이처럼 ICP와 이를 반영한 RDA와 NCR 개정(안), 그리고 VIAF에 반영된 실제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참고하여, 우리의 목록규칙에서도 우리 이용자에게 비교적 익숙한 언어나 문자와 익숙하지 않은 언어나 문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4개 대학도서관과 그 외 KERIS의 종합목록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편목사서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한 결과¹⁴⁾, 한국인명, 중국인명과 일본인명, 로마자로 표기된 서양인명, 기타 외국인명으로 구분하고,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로마자로 표기된 서양인의 이름은 모두 ‘원어’를, 그외 언어나 문자로 표기된 외국인의 이름은 ‘번자’ 형식을 우선명으로 채택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중에서, 한국인명의 한자 표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는데, 이들의 의견은 한국인명의 한자 형식을 ‘개인명의 완전형’이나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 등으로 처리하여 전거형 접근점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한국인명의 한자 형식을 ‘이형’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4) 관련 의견은 2015년 11월 25일 KERIS 종합목록 표준화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다음, 2016년 4월 21일에 개최된 KERIS 종합목록 표준화분과위원회 세미나에서 앞서 수렴한 의견에 대한 대학도서관 편목사서들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개인명이 그 개인과 연관된 자원에서 서로 다른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언어나 문자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 (1) 한국인명은 한글 표기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한국인명의 한자 표기 형식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 (2) 중국인명과 일본인명은 원어 표기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에서 중국인명과 일본인명의 한글 표기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형에 기록한다.
- (3) 로마자로 표기된 서양인명은 로마자 표기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에서 로마자로 표기된 서양인명의 한글 표기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형에 기록한다.
- (4) 중국인, 일본인을 제외하고 비로마자로 표기된 외국인명은 영어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로마자 번자 형식을 우선명으로 선정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에서 비로마자로 표기된 외국인명의 한글 표기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형에 기록한다.
- 우선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언어와 문자 형식은 모두 이형으로 기록한다.

현재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국내 도서관들이 전거형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개인명을 비교해보면, 일본인과 중국인의 우선 개인명에서 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에서 보듯이 현재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5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및 4개 대학도서관)에서 작성한 접근점은 언어나 문자는 물론이고, 이름의 한자 표기의 처리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위에서 제안한 우선 개인명의 선정 기준(안)을 적용한다면, 현재 도서관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접근점은 아래 <표 15>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¹⁵⁾

15)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원어와 원어에 대한 한글 음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면, NDL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100필드와 880필드 ▼6 연결기능을 적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면, 접근점은 “村上春樹(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100 1# ▼6880-01 ▼a村上春樹, ▼d1949-
400 1# ▼a무라카미 하루키, ▼d1949-
880 1# ▼6100-01/(▼a무라카미 하루키)

〈표 15〉 현행 접근점의 기술 사례와 개정(안)의 표준화 방안

현행 접근점 기술 사례(5개관)	개정(안)
100 1♾ ▼a무라카미 하루키, ▼d1949-	100 1♾ ▼a村上春樹, ▼d1949-
100 1♾ ▼aMurakami, Haruki, ▼d1949-	400 1♾ ▼a무라카미 하루키, ▼d1949-
100 1♾ ▼a촌상춘수 ▼h村上春樹	400 1♾ ▼a촌상춘수, ▼d1949-
100 1♾ ▼a촌상춘수 ▼q村上春樹, ▼d1949-	400 1♾ ▼aMurakami Haruki, ▼d1949-
100 1♾ ▼a촌상춘수= ▼h村上春樹, ▼d1949-	

VI. 결론

FRBR과 FRAD 개념모형이 발표된 이후, 북미 도서관계에서는 모형의 적용을 위해 RDA와 MARC21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본에서도 RDA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3년부터 기존의 목록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도 KORMARC의 개정에 이어 KCR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KCR의 개정과정에서, FRBR과 FRAD 개념모형의 수용을 위해 RDA나 MARC21, NCR 개정(안) 등을 대폭적으로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 수 존재한다. 우리의 목록전통이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축해 온 목록의 제반 여건이 그들의 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FRBR 개념모형의 구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전거형 접근점’, 그 중에서도 ‘개인’으로 범주를 한정하여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전거제어 및 전거형 접근점이 현재의 서지세계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FRBR와 FRAD 개념모형에 대한 내용규칙으로 거의 유일하면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RDA와 기존 목록규칙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RDA의 전폭적인 수용을 시도하고 있는 NCR 개정(안)의 ‘개인’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LC와 NDC, VIAF에서 제공하는 개인명 전거레코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의 관점에서 참고로 하거나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전거레코드 및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KCR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접근점 규정의 부재 속에서 그동안 개별 도서관 나름의 방식에 따라 접근점을 기술하여 온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KCR4에서 밝힌 목록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가 되는 ‘우선 개인명’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우선 개인명의 선정과 형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ICP의 관련 항목과 RDA 및 NCR 개정(안)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더불어 우리 도서관 편목사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개인명의 선정과 형식 기준을 한국인, 중국인과 일본인, 로마자로 표기된 서양인, 기타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로마자로 표기된 서양인의 이름은 모두 ‘원어’를, 그외 언어나 문자로 표기된 외국인의 이름은 ‘번자’ 형식을 우선명으로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아직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연구에서 우선명의 선정 기준과 형식을 제안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일부 도서관의 경우 ‘한국인명의 한자 표기’를 ‘이름의 완전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후속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이용자에게 비교적 익숙한 언어나 문자는 ‘원어’를, 익숙하지 않은 언어나 문자는 ‘번자’를 선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의 마련 등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속성 기술을 위해 주제명표목표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작업도 향후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목록규칙의 구성 체계나 식별요소, 나아가 데이터의 세부적인 기술지침에 대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 검토하겠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KCR 개정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관심을 유발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데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3.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 통합서지용 KS 개정 공청회 자료』. 2013년 7월 19일.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 국립중앙도서관. 2015.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전거통제용 KS 개정 공청회 자료』. 2015년 11월 27일.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대강의실.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2.
- 김태수. 2008. 『목록의 이해』.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도태현. 2015. 한국목록규칙 4판 개정판의 구성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07-226.
- 이미화, 노지현. 2016.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

- 학회지』, 47(1): 47-69.
- 이미화. 2012. 대학도서관 전거제어 현황분석을 통한 전거제어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5-26.
- 日本 国立国会図書館. 2013. 新しい『日本目録規則』の策定に向けて. <<http://warp.da.ndl.go.jp/info:ndljp/pid/9484238/www.ndl.go.jp/jp/library/data/newncr.pdf>> [cited 2015. 11. 16].
- 日本 国立国会図書館. 2015. 新しい『日本目録規則』(新NCR). <<http://www.ndl.go.jp/jp/data/ncr/index.html>> [cited 2015. 11. 16].
- 日本図書館協会 目録委員会. 2015a. 『典拠形アクセス・ポイント関係条文案(素案): 属性の記録, 第6章 個人』. 日本: 日本図書館協会. <http://www.ndl.go.jp/jp/data/ncr_ch06_201502.pdf> [cited 2015. 11. 16].
- 日本図書館協会 目録委員会. 2015b. 『典拠形アクセス・ポイント関係条文案(素案): アクセス・ポイントの構築, 第26章 個人』. 日本: 日本図書館協会. <http://www.ndl.go.jp/jp/data/ncr_ch26_201502.pdf> [cited 2015. 11. 16].
- 日本図書館協会 目録委員会. 2016. 『新しい「日本目録規則」(新NCR) 策定について』. 日本: 日本図書館協会. <http://www.ndl.go.jp/jp/data/basic_policy/conference/bib_h27_resume1.pdf> [cited 2016. 4. 4].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한국목록규칙 제4판 개정의 주요 내용. 『2013년도 제1차 회의자료집』. 2013년 7월 18일.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IFLA. 1998.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http://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br/frbr.pdf>> [cited 2016. 4. 30].
- IFLA. 2009a.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http://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ad/frad_2013.pdf> [cited 2016. 4. 30]
- IFLA. 2009b. *The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icp/icp_2009-en.pdf> [cited 4. 30].
- Library of Congress. 2015. *LC RDA core elements*. <https://www.loc.gov/aba/rda/pdf/core_elements.pdf> [cited 2015. 9. 1].
- RDA Toolkit: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http://access.rdatoolkit.org/>> [cited 2015. 9. 1].
- VIAF Home Page. <<http://viaf.org>> [cited 2016. 4. 22].
- NDL Home Page. <<http://www.ndl.go.jp/>> [cited 2016. 4. 2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Jeong-Hyen.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u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2.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Fourth ed.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Doh, Tae-Hyeon. 2015. "Suggestions for the Composition of KCR4 Revis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207-226.
- Lee, Mihwa and Jee-Hyun Rho. 2016.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in KCR4."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47-69.
- Lee, Mihwa. 2012. "A Study on Direction of Authority Control by Surveying the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5-26.